

■ 논문 ■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하영준

I. 기이한 침묵

사이드(Edward W. Said)가 파농(Frantz Fanon)과 함께 “세 명의 위대한 반제국주의 지식인”이라고 평가한 세제르(Aimé Césaire, 1913~2008)와 제임스(C. L. R. James, 1901~1989)는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와 블랙인터내셔널리즘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다.<sup>1)</sup> 이들은 서구 중심적 지배 담론에 도전하는 반식민주의 및 반인종주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문학작품을 통해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전 지구적 정체성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세제르의 에세이 『투쟁 루베르튀르(1961)』와 희곡 《크리스토프왕의 비극(1963)》, 제임스의 역사서 『블랙 자코뱅(1938/1963)』과 희곡 《투쟁 루베르튀르(1936)》, 《블랙 자코뱅(1967)》 등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역사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흑인의 인간됨을 옹호하고 투쟁을 위한 국제적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495).

1)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The 1993 Reith Lectures* (New York: Vintage Books, 1996), p. 93.

연대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sup>2)</sup> 그러나 카리브식민지 출신으로 동시대에서 비슷한 궤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존재한다. 마르크스주의·반식민주의·반인종주의 등 정치적 지향과 지적인 관심이 상당히 수렴됨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혁명 저작에 대한 서로의 언급을 찾기는 힘들다. 프랑스령 카리브 식민지와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 출신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문화적 배경 때문에 상대의 저작을 알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는 그 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침묵이 드러내는 어떤 차이, 즉 흑인급진주의와 블랙인터내셔널리즘이 가졌던 다양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세제르와 제임스에 대한 개별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둘 사이의 비교 연구는 드물다. 특히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다룬 체계적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sup>3)</sup> 인종과 해방 개념을 기준으로 유일하게 세제르와 제임스의 전체

- 2) Aimé Césaire,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1961)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Aimé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A Play*, trans. and intro. Paul Breslin and Rachel Ney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5)];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1938) (New York: Random House, 1989); Toussaint Louverture: The Story of the Only Successful Slave Revolt in History (1936) (Dunham and Lond: Duke University Press, 2013); "The Black Jacobins", Anna Grimshaw ed. and intro., *The C. L. R. James Reader* (Oxford, UK: Blackwell, 1992), pp. 57-111.
- 3) 세제르와 제임스의 희곡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진중화, 「에메 세제르의 크리스토프왕의 비극과 아이티의 역사」, 『프랑스문화연구』, 38집(2011), 339-372쪽; 「'크리스토프왕의 비극'에 나타나는 탈식민화」, 『한국프랑스학논집』, 80집(2012), 187-212쪽;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C. L. R. 제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서양사론』, 124호(2015), 177-210쪽. 해외의 비교 연구로는 John La Guerre,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Aimé Césaire and C. L. R. James : Some Comparisons", Paul Sutton ed., *Dual Legacies in the Contemporary Caribbean: Continuing Aspects of British and French Dominion* (London and Totowa, New Jersey: Frank Cass, 1986), pp. 203-225; John Patrick Walsh, *Free and French in the Caribbean: Toussaint Louverture, Aimé Césaire, and Narratives of Loyal Oppos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pp. 129-196; Philip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pp. 21-36.

사상을 비교 연구한 라게르(John La Guerre)의 연구는 흑인급진주의 지성사의 일반적 이해를 잘 보여준다. 세제르가 계급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인종 문제의 특수성을 인식했으며 메트로폴리탄과는 다른 식민지 혁명의 고유한 속도와 형태를 강조했다면, 제임스는 인종 문제를 계급 문제로 환원하였고 식민지 혁명을 메트로폴리탄 혁명의 일부분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라게르의 해석은 세제르나 파농과 달리 제임스가 왜 오랫동안 흑인급진주의 지성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제임스는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유럽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탈식민주의적인 해석은 이러한 과거의 해석에 도전하고 있다. 제임스가 오히려 본질주의적인 인종 개념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내에 존재하는 차이 즉, 아프리카와 미국과는 다른 카리브 흑인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서 식민지 해방과 국제 혁명의 전망을 제시했으며 ‘메트로폴리스에서 식민지로’라는 전통적인 확산 도식에서 벗어나서 이들 사이에 상호 변형을 강조하고 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제임스 사상에서 새로운 지성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탈식민주의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관련된 일반적 설명은 제임스가 1938년 쓴 역사서 『블랙자코뱅』이 1960년대 세제르의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1961)』와 희곡 《크리스토프왕의 비극(1963)》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월시의 연구이다. 제임스가 1938년 역사서 『블랙자코뱅』을 1963년 일부 수정해서 출간한 것을 ‘반식민주의 로망스에서 탈식민주의 비극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한 스콧(David Scott)의 유명한 연구에 의존하여 월시는 세제르의 에세이와 희곡을 분석하였다.<sup>5)</sup> 세제르의 1963년 희곡도 제임스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탈식민주의적 문제공간(problem-space)을 배경으로 출현했다는 것이다. 월시는 에세이와 희곡을 분석하면서 “제임스처럼 세제르는(Like James, Césaire)” 또는 “제임스를 따라서 세제르는

4) La Guerre,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Aimé Césaire and C. L. R. James”, pp. 223-224.

5) David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Following James, Cesaire)”라는 표현을 통해 제임스를 참조 대상으로 전제한다.<sup>6)</sup> 그러나 그 반대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세제르가 제임스의 1967년 희곡 《블랙자코뱅》을 저술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는 아이티 혁명의 보수주의적 서사와 구별되는 ‘급진적 보편주의’ 서사로서 세제르와 제임스의 작품을 평가한 카이세리(Kaisary)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카이세리의 연구는 월시와 달리 제임스의 1967년 희곡 《블랙자코뱅》을 분석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시대 배경을 1930년대와 연결하는 사료 이용에서의 실수를 하였다.<sup>7)</sup> 제임스 연구자들의 오랜 연구 관행처럼 제임스의 1967년 희곡을 그가 1936년에 쓴 희곡 《투생 루베르튀르》와 (일부 수정되었지만)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세제르가 제임스가 1967년 희곡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고려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의 상식적 설명과 달리, 세제르가 1963년 쓴 희곡 《크리스토프의 비극》이 제임스의 1967년 희곡 《블랙자코뱅》보다 시간상으로 앞서며, 세제르의 사상이 제임스의 희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두 작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오랫동안 제임스 연구자들이 1967년 희곡을 1936년 희곡과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하고 그의 역사서와 함께 193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설명해왔다. 1936년 희곡이 출간된 적이 없이 오랫동안 문서고에 타자본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제임스 사후 그의 문서를 정리했던 그림쇼(Anna Grimshaw)가 1967년 희곡을 1930년대 작품으로 잘못 분류하여 출간했기 때문이었다.<sup>8)</sup> 최근 제임스의 1936년 희곡 《투생 루베르튀르》의 정식 출간으로 그 문제의식과 내용 구성에서 1967년 희곡 《블랙자코뱅》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며 1960년대의 시대 상황에 맞게 제임스가 다시 쓴 작품이라는

---

6) Walsh, *Free and French in the Caribbean*, p. 133, 149, 159, 161.

7)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p. 183.

8) 하영준, 「아이티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193-194쪽.

인식이 동의를 얻고 있다.<sup>9)</sup>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세제르와 제임스의 희곡을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 후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 작품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설명에서 벗어나 세제르의 네그리튀드(négritude) 사상과 아이티 혁명에 대한 해석이 1967년의 제임스의 희곡, 《블랙 자코뱅》의 방향과 내용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는 가정에서 두 작품 사이에 관계를 접근한다.<sup>10)</sup> 196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지적 관계의 설정은 이들의 아이티 혁명 저작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평가를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이티 혁명을 다룬 세제르와 제임스의 희곡은 이들의 다른 중요 저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세제르의 경우, 시집 『귀향수첩(1939)』, 에세이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Discours sur le colonialisme, 1955)』, 희곡 《어떤 태풍(Une Tempête, 1969)》 등과는 달리 《크리스토프왕의 비극》은 그의 지적 발전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경우도 그의 역사서인 『블랙 자코뱅』에 비해서 그의 희곡 작품은 제임스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제르와 제임스는 식민지 독립 이후 아프리카와 카리브 사회가 직면하게 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재현 방식으로 연극을 인식하였다. 이들 희곡에 대한 연구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지식인 사이에서 1960년대 일어난 인식론적 단절, 스콧의 표현을 빌자면 ‘반식민주의 서사로부터 탈식민주의 서사로의 이행’이라는 문제-공간의

9) Rachel Douglas, “A Introduction to C. L. R. James’s *The Black Jacobins*”, *British Library Newsletter*, 11. Jul 2018, Rachel Douglas, “Making Drama out of the Haitian Revolution from Below: C. L. R. James’s *The Black Jacobins Play*”, Charles Forsdick and Christian Hogsbjerg eds., *The Black Jacobins Reader* (Durham and London, 2017), p. 291.

10) 이 연구가 관심에 두고 있는 세제르와 제임스 사이의 상호 영향이라는 지성사적 접근과 관련하여 셀리그만(Katerina Gonzalez Seligmann)의 “Calliban Why? C. L. R. James in Cuba, 1968”이라는 2019년 비공개 발표문은 흥미롭다. 그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지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식인이 모였던 ‘쿠바 아바나 문화 대회(Cultural Congress of Havana)’에 제임스가 참석했고, 그가 세제르의 희곡 《또 하나의 태풍(*Une Tempête*, 1969)》을 포함하여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태풍》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전유한 카리브의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세제르와 제임스의 상호 관계를 블랙인터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기존의 탈식민주의 연구는 메트로폴리탄/중심과 식민지/주변부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폭로·교란·전복하는 성과를 거두어왔지만, 세제르의 표현을 빌자면 식민지/주변부 사이에 ‘횡적 연대를 통한 창조’라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블랙 인터내셔널리즘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양한 지역 출신의 흑인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맺었던 국제적 연대, 즉 ‘블랙 애틀랜틱 커넥션’에 관심을 가져왔다.<sup>11)</sup> 이 연구도 아이티 혁명의 기억이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글로벌한 네트워크와 정체성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세제르와 제임스는 유럽·카리브·아프리카 등지에서 순회 공연된 자신의 아이티 혁명 연극을 통해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도전하는 전 지구적 연대를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시도들은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를 상상의 공동체로 묶고자 시도했던 ‘기억의 정치’였다.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관련된 세제르와 제임스의 지적 관계에 대한 탐구는 ‘탈식민주의적 주체 형성’의 노력에 존재하는 글로벌한 협력과 동시에 불가피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 II. 탈식민적 상황과 재현의 문제

트루요(Michel-Rolph Trouillot)의 ‘역사의 침묵’ 테제가 지적하듯 서구 중심적 담론은 오랫동안 아이티 혁명을 역사 밖으로 배제하고 침묵시켜왔다.<sup>12)</sup> 그러나 그 기억은 역사적으로 침묵당한 적이 결코 없다.

11) 블랙인터내셔널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Brent Hayes Edwards, *The Practice of Diaspora: Literature, Translation, and the Rise of Black Internationalism*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Minkah Makalani, *In the Cause of Freedom: Radical Black Internationalism from Harlem to London, 1917-1939*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Bénédicte Ledent and Pilar Cuder-Domínguez eds., *New Perspectives on the Black Atlantic: Definitions, Readings, Practices, Dialogues* (Peter Lang, 2012).

12)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5).

아이티혁명이 일어난 순간부터 카리브 지역을 넘어서 대서양 커넥션을 따라 그 기억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정체성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왔다. 1930년대 등장한 제임스의 역사서 『블랙자코뱅(1938)』과 세제르의 『귀향수첩(1939)』은 이러한 산물의 하나였다. 1930년대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혁명의 전망은 아프리카에 있었다. 아이티 혁명의 기억은 카리브를 아프리카와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였다. 세제르가 루베르튀르의 영웅적 투쟁을 노래하면서 유럽 식민주의가 부정했던 아프리카인의 인간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려 했다면, 제임스는 아이티 혁명을 통해서 국제 혁명의 도화선이 될 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 투쟁을 전망하였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아이티 혁명의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 이후 아이티 혁명의 기억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세제르의 희곡 《크리스토프의 비극(1963)》와 제임스의 희곡 《블랙자코뱅(1967)》은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희곡은 식민지 독립 이후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성찰하고 새로운 탈식민주의적인 주체를 형성하려는 문화적 노력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비서구/서발턴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침묵시키려는 서구 중심적 담론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세제르와 제임스가 아이티 혁명의 기억에 대한 재구성을 모색하게 된 것은 1960년대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식민지 독립 이후 아프리카의 반식민주의 운동은 비판적이었다. 1957년 이후 가나를 포함하여 약 30여 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곧 이들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주의적 정부는 부패하게 되거나 군부쿠데타를 겪고 붕괴하게 되었다.<sup>14)</sup> 벨기에 콩고의 경우 1958년 루뮴바(Patrice Hemery Lumumba)가 독립 투쟁을 통해서 콩고민주공화국을 건국했지만, 1961년 군부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는 잔혹하게 살해 되었다. 세제르는 이

13) James, *The Black Jacobins*, p. 402, René Deprestre, "Interview with Césaire", Aimé Césaire, Joan Pinkham trans., *Discourse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2), p. 29.

14) C. L. R. James, *A History of Pan-African Revolt* (Washington D.C: Drum and Spear Press, 1969), pp. 113-117.

역사적 사건을 다룬 희곡, 《콩코의 한 계절(1966)》을 썼다.<sup>15)</sup> 영국령 가나의 경우, 식민지 해방과 독립을 쟁취했지만 사회주의였던 응쿠르마(Kwame Nkrumah)가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제임스는 1963년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는 공개편지를 자신의 동지였던 응쿠르마에게 쓸 수밖에 없었다.<sup>16)</sup> 응쿠르마는 결국 1966년 쿠데타로 쫓겨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1963년 토고 대통령의 암살, 콩고 정부의 전복, 다오메이(베냉)의 쿠데타, 니제르 정부의 전복 시도, 1964년 잔지바르 정부의 전복, 탄자니아·케냐·우간다 등의 군부 반란 등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희곡 《블랙자코뱅》을 썼던 1967년의 상황에 대해서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17)</sup> “1967년이 아마도 가장 나빴을 것입니다...1963년 이래 아프리카의 상황이었습니다.”

카리브 상황도 아프리카에 못지않았다. 제임스는 1967년 한 강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카리브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국민에게 야만적 잔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였다.<sup>18)</sup> 이미 그는 자기 고국에서의 추방과 ‘서인도연방’의 좌절을 경험하였다. 『자본주의와 노예제(1944)』로 잘 알려진 역사가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영국과 투쟁하면서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독립을 이끌었지만, 학문적 스승이자 함께 건국을 위해서 일했던 제임스를 1962년 추방하였다. 독립 이후 미국 및 서방과의 우호적 정치 관계를 마련하는데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철저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했던 제임스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임스가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영국령 서인도연방의 결성 또한 실패되게 되었다. 서인도연방은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정치적

---

15) Aime Césaire, *Une Saison au Congo* (Paris: Editions Du Seuil, 2001). 진종화, 「에메 세제르의 『콩코의 한 계절』에 나타나는 파트리스 루뎀바」, 『프랑스문화예술연구』, 51집(2015), 501-544쪽.

16) C. L. R. James, *Nkrumah and The Ghana Revolution* (London: Allison & Busby, 1977), pp. 181-188.

17) C. L. R. James, “Reflections on Pan-Africanism”, Transcript of Speech, Nov. 20(1973). <https://www.marxists.org/archive/james-clr/works/1973/panafricanism.htm> (2015-02-10)

18) C. L. R. James,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1967)”, David Austin ed.,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 The Montreal Lectures of C. L. R. James* (Edinburgh, Oakland, and Baltimore, 2009), pp. 42-43.



독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는 1966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노동자농민당〉을 결성하고 계급정치를 표방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지만 패배를 하고 또 다시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sup>19)</sup>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세제르도 마르티니크의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였다. 1945년 정치가로 변모하여 마르티니크에서 포르드프랑스(Ford-de-France)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프랑스 공산당과 정책적으로 연합하여 프랑스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45년 프랑스공산당에 가입하고 1946년 마르티니크를 포함하여 프랑스 식민지 과들루프·기아나·라레위나옹을 프랑스의 (해외)도(Département)로 통합하는 법령을 추진하였다. 세제르의 목표는 프랑스로의 동화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의 평등한 향유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sup>20)</sup> 그러나 원하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56년 세제르는 인도차이나와 알제리 등지의 식민지 문제와 관련된 프랑스 공산당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탈당하였고,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지지와 마르티니크의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방 체제를 주장하게 되었다. 통합을 통한 완전한 동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독립은 마르티니크에게 경제적 자살이 될 것이었다. 동화나 독립이 아니라 연방 체제가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연대뿐만 아니라 자결과 문화적 자율성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세제르는 1957년 마르티니크진보당(Parti progresssite martiniquais)을 결성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마르티니크가 지역 사안에 주권을 가지는 연방 체제를 추구하였다.<sup>21)</sup> 1958년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사태를 계기로 4공화국이 붕괴하고 강력한 대통령제에 기초한 드골의 제 5공화국이 등장하였다. 세제르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겠다는 드골주의자들의 약속을 믿고 프랑스공화국

19) 하영준, 「C. L. R. 제임스와 카리브의 탈식민화」, 『호모미그란스』, 15(2016), 51-78쪽.

20) Gary Wilder, *Freedom Time: Negritude, Decolon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World*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5), pp. 106-112.

21) *Ibid.*, pp. 167-205.

내에 남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정부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대중 시위와 소요를 겪었다.

이러한 1960년대 반식민주의 운동의 암울한 상황은 세제르와 제임스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 세제르가 ‘동화나 독립이나’의 이분법을 넘어서 ‘자주(autonomie)’를 보장하는 연방 체제라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찾는데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 루베르튀르는 중요한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하였다.<sup>22)</sup> 루베르튀르는 자신이 만든 1801년 헌법을 통해서 프랑스 제국으로부터 생도밍그의 완전한 자치를 선언했지만 독립이 아니라 프랑스 제국의 식민지로 남기를 선택하였다. 제임스도 1930년대 등장한 영국 자치령(dominion) 제도와 비슷한 모델로서 시대를 앞선 매우 독창적 사고라고 평가했던 루베르튀르의 정치적 상상력에 세제르가 받은 영향은 그의 1961년 에세이, 『투쟁 루베르튀르』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세제르는 1963년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새롭게 재소환하면서 과거의 서사시나 에세이가 아니라 희곡이라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낳은 문제의식을 1969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23)</sup> “특별히 아프리카의 독립 성취와 함께...우리는 책임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흑인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우리는 성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현재 세기에, 시는 다소 소수만이 이해하는 난해한 언어처럼 보입니다. 명확하고 의식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말해야만 합니다. 연극 무대는 그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제르는 식민지 독립 이후에 제기되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재현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연극 무대를 문화적 재현의 수단으로서 선호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식민지

---

22) 루베르튀르와 세제르의 연방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Nick Nesbitt, “From Louverture to Lenin: Aime Césaire and Anticolonial Marxism”, *Small Axe*, 19-3(2015), pp. 129-144.

23) Albert Owusu-Sarpong, *Le Temps Historique dans L’Oeuvre Théâtrale d’Aimé Césaire* (Paris: Editions L’Harmattan, 2002), p. 19.

독립과 연관되어 있었다. 새롭게 해방된 아프리카 국민의 문화적 저발전 상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각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연극 무대는 중요하였다.<sup>24)</sup> 문맹이라도 연극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시각적 차원은 관객이 연극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세제르의 표현에 따르면, 연극 무대의 목적은 “보게 만드는 것(donner-a-voir)”이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donner-a-penser.)”에 있었다.<sup>25)</sup> 연극 무대는 관객과 독자에게 자기 선조와 동시대인을 재현하면서 스스로를 보는 거울로서 봉사한다. 연구무대가 자기성찰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이러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사회적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흑인 관객의 ‘멘탈리티 혁명(revolution of mentalities)’을 유도할 수 있다. 세제르는 연극 무대가 식민지시기에 억압되었던 토착적 문화 전통을 소생시켜 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구체화한다면 탈식민화된 문화의 출현에 중요하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제임스도 1936년 《투생 루베르튀르》을 쓰고 런던에서 공연한지 30년이나 지난 후 다시 희곡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다. 제임스는 아이티 혁명에 대한 희곡을 다시 쓰게 된 이유를 “1967년경에 해방의 향한 식민지 투쟁이 거대하게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다시 희곡을 쓰도록 요구했던 식민지 투쟁의 발전이란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와 카리브의 식민지 독립 이후 일어난 반식민주의 운동의 급속한 부패와 타락이었다. 제임스는 아프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이 겪게 된 위기의 원인을 최초로 식민지 해방을 성취했던 아이티 혁명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원을 보는 것입니다. 자유가 획득된 바로 그 순간에 그 초기 출현을 보는 것입니다.”<sup>26)</sup> 그러나 이미

24) Robert Eric Livingston, “Decolonizing the Theatre: Césaire, Serreau the Drama of Negritude”, J. Ellen Gainor ed., *Imperialism and Theatre: Essays on World Theatre, Drama and Performance 1795-199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p. 179-182.

25) Kersuze Simeon-Jones, *Literary and Sociopolitical Writings of the Black Diaspora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Lanham: Lexington Books, 2010), pp. 137-140.

26) James,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1967)”, pp. 42-43.

노년이 된 제임스에게 아이티 혁명의 역사서를 다시 쓰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대신 희곡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에는 세제르와 마찬가지로 연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또한 기반하고 있었다. 제임스에게 근대 비극은 역사적 위기와 이행기로부터 출현한 문학 장르로서 식민지 독립과 탈식민화의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사회의 심층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인간들 사이에, 그리고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갈등과 대립으로 형상화하는 근대 비극은 탈식민 사회의 근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르와 제임스의 희곡이 공연되는 과정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이 본래 가지고 있던 집단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세제르의 희곡은 잡지, 《아프리카의 현전 (Présence africaine)》에서 1961년, 1962년, 1963년에 막별로 부분 연재되었고, 1963년 단행권이 발행되었다. 세제르가 쓴 희곡들 중 출간된 첫 작품이다. 세제르가 쓴 다른 두 작품, 《콩고의 한 계절(1966)》, 《또 하나의 태풍(1969)》과 함께 세제르의 희곡 삼부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3년 10월 벨기에에서 블린(Roger Blin)의 감독 아래 그리오츠(Les Griots)가 희곡의 무대 낭독을 하였다. 첫 공연은 1964년 여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1965년 베를린·빈·브뤼셀·베니스·파리 등지로 유럽 순회공연이 있었다. 1966년 6월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도 공연되었다.<sup>27)</sup> 연극 공연은 무대 연출가인 세로(Jean-Marie Serreau)와의 적극적 협력 아래 이루어졌고, 공연 때마다 그는 연극의 즉흥적 변주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연 경험을 반영하여 세제르는 1970년 재출간하면서 많은 수정을 하였다.<sup>28)</sup> 《블랙 자코뱅》은 1967년 공연을 목적으로 제임스가 쓴 희곡이다. 연출가 린더세이(Dexter Lyndersay)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바단 대학(the University of Ibadan)에서 공연하였다.

---

27)Patrick Manning, *The African Diaspora: A History through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 284.

28)Paul Breslin and Rachel Ney, "Introduction: *The Challenge of Aimé Césaire's The Tragedy of King Charistophe*", *Césaire,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 xiv.

제임스가 1936년에 쓰고 영국 런던에서 공연했던 《투생 루베르튀르》 이후 그가 쓴 두 번째이자 마지막 희곡 작품이다. 《블랙 자코뱅》은 지금까지 두 번 출판되었다. 힐(Errol Hill)이 1976년에 편집한 『카리브 희곡 선집』에 최초로 실렸고, 이후 그림쇼가 1992년에 편집한 『C. L. R 제임스선집』을 통해서 다시 출간되었다. 나이지리아 공연 대본과 이후 출판 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이지리아 공연 대본에는 출판 본에는 없는 ‘에필로그’가 존재한다. 제임스의 연극은 아프리카에서 공연된 후 카리브와 영국 등지에서도 공연되었다. 공연 과정에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수정이 또한 이루어졌다. 세제르처럼 제임스의 희곡에도 연출가 린더세이의 개입은 커서 일부 제임스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제임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러한 연극의 집단에 예술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식과 관심의 수렴에도 불구하고 세제르는 제임스의 작품을 언급한 적이 없다. 제임스가 영국령 카리브라는 자신과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는 그 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임스는 1930년대 자신의 역사서 『블랙자코뱅』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려고 1933년 겨울과 1934년 봄 파리에 체류했을 당시 프랑수아 기아나 출신의 흑인 시인, 다마(Léon-Gontran Damas)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sup>29)</sup> 그는 세제르의 동료로서 프랑수아 세네갈 출신의 상고르(Leopold Senghor)와 함께 ‘네그리튀드의 삼총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또한 제임스의 정치적 동료였던 나빌(Pierre Naville)이 『블랙 자코뱅』을 1949년 프랑수아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세제르가 1961년 『투생 루베르튀르』를 쓸 때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었다.<sup>30)</sup> 그리고 세제르는 1968년 쿠바 아바나에서 제임스를 만났고 대화도 함께 나누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부인이자

29) C. L. R. James, “My Knowledge of Damas is Unique”, Daniel L. Racine ed., *Leon-Gontran Damas, 1912-1978, Father of Negritude: A Memorial Casebook*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79), pp. 131-134.

30) C. L. R. James, *Les Jacobins Noirs: Toussaint Louverture et la révolution de Saint Domingue* (Paris: Gallimard, 1949). 이 번역본은 1983년 두 번째 번역자 서문과 함께 다시 출간되었다.

정치적 동료였던 셀마 제임스는 세제르와 파농이 『블랙 자코뱅』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31)</sup> 그러나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세제르는 자신의 저작에서 제임스의 희곡뿐만 아니라 역사서도 한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반면 제임스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1968년 쿠바 아바나에서 세제르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회상하였다. 세제르가 자신에 대해서 쓴 제임스의 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2)</sup> 제임스는 1963년에 재 발간된 역사서 『블랙자코뱅』에 추가한 「부록: 루베르튀르에서 카스트로까지(Appendix: From Toussaint L'Ouverture)」에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개념을 꽤 길게 논평하였다.<sup>33)</sup> 쿠바에서 세제르를 만났을 때 제임스가 언급한 글이 이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세제르가 제임스의 역사서를 읽은 것이 된다. 제임스는 세제르에 대한 짧은 전기적 소개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임스의 경우에도 아이티 혁명과 관련된 세제르의 저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아마도 유일한 언급이 1963년 재 발간된 역사서의 아이티 혁명사 관련 서지 소개에서 등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간략하고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 세제르의 『투생 루베르튀르』는 “예상대로, 투생과 생도밍그 혁명을 매우 능숙하고 훌륭하게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 이 책에는 세제르가 쓴 대부분의 작품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영감과 끝없이 계시가 결여되어 있다.”<sup>34)</sup> 세제르의 침묵과 함께 이러한 제임스의 짧은 부정적 평가는 한 연구자가 지나가며 가볍게 말하듯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폄하에 불과할까?<sup>35)</sup>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할 것일까?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1960

---

31) Selma James, “*The Black Jacobins: Past and Present*”, Forsdick and Hogsbjerg eds., *The Black Jacobins Reader*, p. 73.

32) C. L. R. James, “The Class Basis of the Race Question in the United States(1971)”, *New Politics*, 49(Winter, 2016), p. 55.

33) James, *Black Jacobins*, pp. 399-402.

34) *Ibid.*, p. 389.

35) Madison Smartt Bell, “After to The Black Jacobins’s Italian Edition”, Forsdick and Hogsbjerg eds., *The Black Jacobins Reader*, p. 305.

년대 탈식민적 상황에 따른 기억의 재구성에서 세제르에게 아이티혁명은 여전히 카리브를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다면 제임스에게 이제 아이티혁명은 아프리카와 구분되는 ‘카리브적인 것’의 시작점이 되게 되었다.

### III. 《크리스토프왕의 비극》과 대안적 근대성

《크리스토프왕의 비극》은 프롤로그와 3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막은 7장, 2막은 8장, 3막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막과 2막 그리고 2막과 3막을 연결하는 막간(interlude)이 있다. 연극은 아이티의 독립을 이끈 장군 중 하나인 크리스토프가 새로운 아이티 지도자가 된 1806년부터 1820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희곡은 아이티 건국 이후 황제 자크 1세로 등극한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이 1806년 암살당하고 상원이 크리스토프를 공화국 대통령으로 지명하게 된 시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몰라토가 장악한 상원을 대표해서 페티옹(Alexandre Sabés Pétion)이 제한된 권력만을 가진 대통령직을 제안한다. 그러나 크리스토프는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아이티 북부 지역에서 왕국을 세워 왕이 된다. 그는 아이티를 영광스러운 흑인 국가로 만들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국민을 지나치게 잔혹한 노동 상태로 몰고 간다. 국민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크리스토프 왕은 결국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제르의 희곡은 스콧의 개념을 빌자면, 반식민주의에서 탈식민주의 문제공간으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중첩된 서사 방식을 보여준다.<sup>36)</sup>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가 로망스적인 형태로 연극의 중심 틀을 구성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자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이 말하는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는 식민주의를 특정한 종류의 개념적·이데올로기적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에 의존한다. 식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권력으로 간주된다.

36)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접근은 Breslin and Ney, “Introduction”, p. xlix-1, Walsh, *Free and French in the Caribbean*, p. 104.

잔혹성·폭력·비인간화와 사물화·인종주의·배제 등의 부정적인 사회 구조인 것이다. 반식민주의는 식민지 억압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창출과 새로운 사회 체제의 건설을 열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키는 특정한 서사 방식을 통해서 구현된다. 혁명적 로망스는 반식민주의의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서사 방식의 전형이다. ‘억압과 저항, 갈등과 고난, 최종 승리’의 점층 구조로 과거-현재-미래를 엮는다. 스콧에 따르면 제임스의 1938년 역사서, 『블랙자코뱅(1938)』,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1958)』,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1961)』 등은 이러한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의 대표적 사례이다.<sup>37)</sup>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1963)》도 전체 서사의 문제들이 대서양 노예제의 억압적·부정적 잔재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희곡은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가 독립 이후 자유를 억압하는 담론으로 전환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 비극이라는 서사적 특징을 또한 가진다. 크리스토프 왕이 자신의 전체 정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노예제의 억압적·부정적 유산을 총체적으로 변혁하려는 그의 반식민주의 열망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프는 아이티 국민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프랑스 제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sup>38)</sup> 나태·파렴치·규율의 증오, 관능욕, 무기력 등이 아이티 국민의 진정한 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토프는 아이티 국민이 누린 자유의 10년이 우리 선조가 채찍질 맞으며 노역을 통해서 모았던 부를 탕진해버린 태만과 무책임의 10년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계급·인종·부족·지역 등으로 패거리 짓고 분열하고 싸우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sup>39)</sup> 크리스토프가 공화정이 아니라 왕정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노예제가 물려준 부정적 유산 때문이었다. 절대 권력만이 강제 노역 아래에서 자기규율을 배우지 못한 문화 수준이 낮은 아이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새로운 국가를

37)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 6, 30.

38)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 29,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p. 15-16.

39)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 49,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 30.



건설할 수 있었다. 크리스토프는 노예제의 복귀와 새로운 종속의 등장을 막고 아이티 국민의 행복과 영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 국가의 건설을 원하였다. 크리스토프가 프랑스 왕정 모델을 차용하여 자신의 대관식을 연출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 즉 과거 흑인 노예였던 사람들을 프랑스적 귀족 칭호와 예절을 가진 지배층으로 창출하려는 목적도 이 때문이다. 비웃음만을 살 수 있는 연출이었지만 유럽 제국에게 흑인 국가의 위신을 과시하고 아이티 국민을 문명화시키려는 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sup>40)</sup> 왕이 된 크리스토프는 국민을 교정하고 교육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계몽군주의 태도를 갖고 아이티 국민을 새로운 인간형으로 창조하려고 시도한다. “노동 없이 자유는 존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국민에게 군인 수준의 복종과 의무를 강제하며 국가를 군사 조직화한다. “그래서 자유의 길과 노예의 길이 하나이자 동일한 길이 되는군요...매력적인 역설이네요! 사실상 크리스토프 왕은 노역(servitude)을 통해서 자유를 섬기네요!”<sup>41)</sup> 이러한 크리스토프의 모습은 1960년대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 이후 상당수 사회주의·민족주의 국가들이 독재체제와 개인숭배로 가는 과정을 암묵적으로 반영한다.

세제르의 희곡이 가지는 탈식민주의 서사의 또 다른 특징은 크리스토프 왕을 네그리튀드의 구현자로서 묘사하는 동시에 이에 의문을 던지는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제르에게 아이티는 앤틸리스 제도에서 아프리카를 상징하며 흑인 노예 혁명을 통해서 네그리튀드가 최초로 분연히 일어난 곳이다.<sup>42)</sup> 이러한 맥락에서 세제르는 흑인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유럽의 식민제국에 맞서 흑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고군분투한 반식민주의 영웅으로 크리스토프 왕을 찬양한다. 유럽 역사가들은 유럽 국가를 자기 모델로 삼고 프랑스인을 흉내 내는데 시간을 낭비한

40) Kennedy Miller Schultz, “Haitian H/(h)istories: Representation of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Hiation Revolution in the Plays of Glissant, Césaire and Dadie”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0), p. 155.

41)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 79,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 49.

42) René Depestre, “An Interview with Aimé Césaire”, Aimé Césaire, *Discourse on Colonialism*, trans. by Joan Pinkha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p. 90.

우스꽝스러운 인물 정도로 크리스토프 왕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세제르에 따르면 이러한 기존 해석은 그가 가졌던 심오한 사고와 실질적인 불안을 드러내지 못한다. 크리스토프 왕은 유럽 백인과 아이티의 몰라토에 대항해서 자신의 흑인됨에 자긍심을 가졌던 인물이었다.<sup>43)</sup> 그가 자국민을 전체적으로 억압했을 때조차, 흑인임을 긍지의 원천으로 만들고 흑인 국가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강박에서 그렇게 하였다. 따라서 세제르에게 크리스토프왕은 많은 결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그리튀드의 선구자이다.<sup>44)</sup> 세제르는 카리브의 토양에서 자신의 아프리카 뿌리를 찾는 왕의 헌신을 보여주면서 아이티 혁명의 승리와 상실했던 아프리카(문화)의 역사적 복권 사이에 연관을 명확히 한다.<sup>45)</sup> 이것은 희곡이 보여주는 혁명적 로망스의 서사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크리스토프는 역사적으로는 패배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지만, 연극의 마지막에서 아프리카(에디오피아)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기를 가지고 아이티의 수호신이 되는 신화적 방식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sup>46)</sup> 그러나 다른 한편 희곡은 크리스토프 왕의 네그리튀드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나아가 그 흑인됨을 해체하는 또 다른 서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문제의식을 세제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흑인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자도 또한 해방시켜야 했습니다.”<sup>47)</sup>

희곡이 보여주는 크리스토프 왕은 과거 세제르가 『귀향 수첩』에서 형상화했던 네그리튀드의 전형이 결코 아니다. 세제르의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오히려 (서구적인) 근대적 인물, 즉 ‘프로메테우스’였다. 세제르는

43) Charles H. Rowell, “‘It is through Poetry that One Copes with Solitude’: An Interview with Aimé Césaire”, *Callaloo*, 31-4(2008), p. 995.

44) Vicotor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p. 95.

45) *Ibid.*, p. 105.

46)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p. 152-153,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 97.

47) Aimé Césaire & Françoise Vergès, 변광배·김용석 역, 『나는 흑인이다. 나는 흑인으로 남을 것이다. 에메 세제르와의 대담』, (서울: 그린비, 2016), 65쪽.

한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프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의 국민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예외적인 송고의 대상으로 발돋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노예제로부터 벗어난 한 인간에 대한 연민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단들이 항상 최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그의 방법들도 불구하고, 그의 조롱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크리스토프가 위대한 이유입니다...프로메테우스적인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크리스토프의 팬이라거나 그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노예제로부터 성장한 한 인간의 성향, 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사로잡혔지만 거기서 길을 잃게 되는 한 인간의 성향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sup>48)</sup> 이러한 세제르의 언급에서 대서양 노예제는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에서처럼 흑인 노예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부정적 구조가 더 이상 아니다. 크리스토프 왕 같은 앤틸리스 흑인들의 성향을 규정하고, 이러한 성향이 실현되는 특정한 방법과 수단을 제공하는 생산적 권력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민주의가 저항이 가능한 토대 자체를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흑인 노예가 자신의 저항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개념적·제도적 조건을 재형성하고 재조직하였다. 크리스토프왕은 식민지 근대 세계가 만든 범주와 제도 안에서 영광된 흑인 국가의 건설이라는 전망을 가질 수 있었고 실천할 수 있었다. 스코트의 표현을 빌자면, 크리스토프 왕은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에서 그려지는 근대의 저항적 ‘행위자’가 아니라 식민지 근대의 ‘징집자’였다.<sup>49)</sup>

따라서 흑인됨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크리스토프 왕의 목적과 그 수단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크리스토프 왕은 발전과 문명의 성취를 서구적 산업화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적·근대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sup>50)</sup> 서구 문명은 크리스토프 왕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차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함의 모델이었다.<sup>51)</sup> 흑인 노예들은 비록 해방되었지만 유럽 식민주의가 오래전에 빼앗아간

48)Rowell, “It is through Poetry”, p, 995.

49)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 115-119.

50)Schultz, “Haitian H/(h)istories”, pp. 154-160.

51)Figu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108.

자신의 “진실된 이름”은 되찾을 수가 없다고 크리스토프 왕은 지적한다. 빼앗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카리브 흑인 노예들에게 되돌아갈 노예제 이전 사회, 모국 아프리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택 가능성은 서구 문명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가 아니라 서구 문명 내에 있었다. 이제 “노예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치욕의 이름을 자부심의 이름으로”, “고아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덮어 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유일한 방식은 유럽을 흉내 내는 것, 즉 프랑스식 왕정과 귀족 명칭을 차용하는 것뿐이었다.<sup>52)</sup> 크리스토프 왕은 자신의 나라, 아이티를 먼지·진흙·진창으로 가득 찬 형태 없는 땅덩이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저발전의 진득거리며 진창 같은 속성에 메스꺼워하고 그가 발전과 문명이 가지는 특성으로 돌리는 콘크리트적인 물성과 금속적 특성에 매료된다. 크리스토프 왕이 자유의 상징으로 간주하면서 성채(Citadelle Laferrière)를 건축하는 것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이러한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깊은 매료 때문이다. 그에게 발전이나 문명은 혼돈(카오스)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정치적·물리적 형태를 부과하는 능력이다. 즉 구별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크리스토프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은 건축가가 건물을 건설하듯 국가와 국민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sup>53)</sup> 노예제로부터 물려받은 혼돈스러운 재료(자기규율 없는 낮은 문화 수준의 흑인 대중)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크리스토프 왕은 유럽적·근대적 기준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가지고 전제 정치를 통해서 아이티 국가와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치적·심리적 실재를 창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발전과 문명에 대한 크리스토프 왕의 전망은 영국에서 노예해방을 위해 투쟁해왔던 그의 백인 동지, 윌버포스(Wilberforce)의 입장과 명백히 대립한다. 또한 크리스토프 왕의 아내로부터도 격정과

52)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 37,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p. 21-22.

53) John Conteh-Morgan, “A Note on the Image of the Builder in Aimé Césaire’s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French Review*, 57-2(December, 1983), pp. 224-228.

우리의 대상이 된다.<sup>54)</sup> 월버포스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지배하려 하기 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 리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나라는 창조물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한 해 한 해 나이테가 생기듯 더딘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리스토프 부인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과도함을 지적하면서 아이티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프 왕은 “한 민족의 운명을 태양에 맡기고, 비에 맡기고, 계절에 맡기다니 우스운 생각”이라고 반박하고 “추방, 노예무역, 노예제도, 집단적인 짐승으로의 전략, 전적인 모욕, 지독한 무시”를 겪은 우리 흑인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흑인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해야 하고 좀 더 일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토프 왕은 나무와 대립되는 돌·시멘트를 상징적으로 선택하고 정치 지도자를 농부가 아니라 건축가와 기술자에 무의식적으로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농업 사회가 아니라 산업 사회로서의 아이티 국가를 전망한다.<sup>55)</sup> 따라서 크리스토프 왕의 전망은 세제르가 『귀향 수첩』에서 노래한 농업적·비산업적·유기적 문화의 가치를 옹호하는 네그리튀드의 정신과는 불일치한다. 세제르의 희곡에서 네그리튀드 정신을 사실상 옹호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토프 왕과 같은 흑인 남성 영웅이 아니라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다.

세제르는 『귀향수첩』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아프리카 문명과, 그리고 아프리카 문명과 아프리카인을 경멸하고 부정해온 온 백인의 세계, 그 과학과 공학의 문명을 대조시켰다. “아무 것도 만들어내지 않지만/아무것도 탐구하지 않지만/아무것도 지배하지 않지만/사물의 본질에 사로잡히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꺾테기를 무시하되 사물의 내면의 소리에 사로잡히고/지배하는 것에 무관심하되/운명을 걸고 세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여 만세//(,,) 들어보라 백인의 세계. 과도한 노동에 지쳐/냉혹한 별들 아래서 마디마디가 빼격거리는 소리를/살의 신비마저 도려내는 푸른 금속의

54)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p. 58-59,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p. 36-38.

55) Schultz, “Haitian H/(h)istories”, pp. 160-165.

삼엄한 소리를/ 허영에 가득 찬 정복이 패배를 고하는 소리를/들어보라, 장황한 변명 뒤에서 가련하게 버둥거리를 소리를”<sup>56)</sup> 이렇게 세제르는 이분법적 상징화를 통해서 유럽의 근대 문화와 구분되는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를 재발견한다. 아프리카 문화의 자연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억압당하고 부인되었던 흑인됨을 자긍심의 근원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희곡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은 백인 남성 윌버포스와 흑인 여성인 크리스토프 부인이다. 오히려 네그리튀드의 구현자인 크리스토프 왕은 인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돌·시멘트·성체를 열망한다.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크리스토프 왕 (1963)》에서 연극작가 세제르는 시인 세제르의 네그리튀드가 전제하는 아프리카 중심주의와 인종 본질주의를 해체하고 있다.<sup>57)</sup>

세제르의 희곡은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지향이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크리스토프 왕은 아프리카의 절대 군주를 자신의 모델 삼는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과거 서아프리카의 제국, 다호메이의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왕실근위대, ‘로알-다호메이 (Royal-Dahomey)’를 통해서 국민에게 복종과 의무를 강요하는 철권통치를 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전체정치를 정당화한다. 아이티의 흑인을 아프리카인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구성원들이라고 언급하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족이 모여 자신, 즉 왕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의 아이티 대가족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르는 희곡에서 아프리카가 카리브의 탈식민화에 지닌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소외되고 부정당한 흑인노예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아프리카의 문화가 지닌 중요성은 여전하였다.<sup>58)</sup> 국민의 반란으로 국가 건설이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크리스토프 왕은 아프리카가 자신을 아기처럼 안아주고

56) Aimé Césaire, *Return to My Native Land*, trans. by Anna Bostock & John Berger (Penguin Books, 1969), pp. 75-76, James, *Black Jacobins*, pp. 399-400.

57) Conteh-Morgan, “A Note on the Image of the Builder”, p. 229.

58) Curtis Small, Jr., “‘Cet homme est une nation:’ the Leader and the Collectivity i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Hugo, Lamartin, Glissant, Césaire)” (New York University, 2001), pp. 194-200.

자기 몸을 씻어주기를 원한다.<sup>59)</sup> 앤틸리스 제도의 유배지에서 흑인 노예라는 인종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는 아프리카라는 안식의 공간에서 영혼의 평안과 정화를 얻으려 한다. 희곡은 이렇게 아프리카를 초월적·신화적으로 그리면서 네그리튀드가 아프리카 문명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찬양이 아니라 카리브의 탈식민화의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한다.

세제르르는 유기적·비산업적·농업적 전통과 문화를 가진 ‘상상된 아프리카’, 또는 ‘부재하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앤틸리스 제도의 구원과 서구 문명의 비판 또는 대안적 근대성의 창출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르르의 논의에서 ‘상상된 아프리카’는 종종 어떤 본질적 실체를 가진 아프리카로 의미가 변화하면서 본질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제르르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르티니크와 소위 프랑스랭 앤틸리스 제도는 유럽 세계와 아프리카 세계가 분명히 합류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아시아적일 (인도에서 오는) 인도계 유입물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두 세계와 이 세 번째 세계가 합류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 그것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구성 요소, 기반은 아프리카입니다.”<sup>60)</sup> 이러한 아프리카적 뿌리에 대한 세제르르의 추구는 대서양 노예제를 흑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부정적 권력을 간주하는 반식민주의적 인식 틀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과 주체의 관계를 이항 대립적으로 설정하면 권력의 외부에서 저항적 주체성의 창출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아이티와 카리브의 민중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희곡은 아이티 민중이 언어·노래·종교 등을 통해서 아프리카적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유럽적·근대적 기준에 대한 지나친 강박을 통해서 점점 더 소외되고 왜곡되는 크리스토프 왕의 정체성과 전망을 치유하고 교정할 수 있는 있는 암묵적 대안으로

59)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p. 147,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 93.

60) 재인용,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시와 평론에 나타나는 앙티아니테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해 정체성 추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집(2010), 483-484쪽.

제시된다. 그러나 저항과 반란 의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자율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상된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아프리카와 카리브 민중의 문화를 본질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토프 왕》은 『귀향수첩』과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에 담긴 반식민주의 해방서사와 네그리튀드 정신에 연장선에 있지만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서사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찰의 정치적 지향은 무엇일까? 스콧이 말한 것처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총체적 혁명의 가능성과 그 실효성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제임스는 세제르의 『귀향수첩』을 분석하면서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인류애를 향해 나아가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sup>61)</sup>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이 흑인됨의 긍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움, 지성, 힘은 어떤 인종에게도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네그리튀드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님을 분명하다. 네그리튀드란 모두가 바라는 세계를 이루기까지 한 인종이 가지고 가야할 것이다...(세제르가) 마르크스의 유명한 구절 ‘인류애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를 시로 구현했다는 점을 못보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가장 천박한 인종주의가 될 것이다.”<sup>62)</sup> 희곡 《크리스토프 왕》은 스콧이 주장한 탈식민 시대의 정치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흑인 해방을 통한 인간해방, 또는 특수를 통한 보편의 지향이라는 『귀향수첩』의 핵심을 탈식민적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블랙 자코뱅》과 근대의 재구성

제임스의 《블랙 자코뱅(1967)》도 세제르의 희곡처럼 프롤로그와 3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1막은 4장, 2막은 4장, 3막은 2장으로

61) James, *The Black Jacobins*, p. 402.

62) *Ibid.*, p. 401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임스의 희곡은 막간이 없고 대신 에필로그가 있다. 에필로그는 아이티 혁명과 연결하여 1960년대 탈식민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에필로그는 하나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카리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대본이 타자본(초고)의 형태로 존재한다. 에필로그는 희곡의 출간 본에 없고 실제 공연에서도 사용되지는 않았다.<sup>63)</sup> 제임스의 희곡은 세제르가 다룬 크리스토프 왕 시기(1806-1820)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시기를 다룬다. 루베르튀르가 노예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생도밍그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되지만 나폴레옹이 보낸 프랑스원정대에 체포되어 결국 프랑스감옥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는 1794년부터 1805년까지이다.

세제르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독립 이후 카리브와 아프리카 국가의 위기는 제임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제임스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반식민주의 혁명을 염두에 두고 1936년 쓴 희곡과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1967년 희곡은 《투생 루베르튀르(1936)》이 가졌던 혁명적 로망스와는 완전히 다른 비극적 서사방식을 가진다. 우선 루베르튀르를 연극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삼고 있지만, 제목이 ‘투생 루베르튀르’에서 ‘블랙자코뱅’으로 변경되면서 연극의 초점이 아이티 혁명을 이끈 영웅 개인에서 흑인 노예 집단으로 이동한다. 희곡의 무대 지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균중은 거의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강력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연극의 핵심이다.”<sup>64)</sup> 백인 농장주들이 노예제 폐지를 청원한 물라토와 흑인 노예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장면을 통해 노예제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1936년 연극의 처음과 루베르튀르의 뒤를 이은 데살린이 물라토와 흑인을 단결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연극의 마지막은 사라졌다.<sup>65)</sup> 반면 1967년 연극은 주된

63) C. L. R. James, Typed manuscripts (7 copies) of the play *Black Jacobins* dated 1967, no. 228, box 9,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64) James, “The Black Jacobins”, p. 68.

65) C. L. R. James, *Toussaint Louverture: The Story of the Only Successful Slave Revolt in History, A Chronicle Play in 3 Acts*, [manuscript], no. 275, box 12,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pp. 1-8, 103-109.

초점을 루베르튀르가 군사적으로 생도밍그를 장악하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시기에 맞춘다. 루베르튀르가 국제적으로 생도밍그를 식민화 하려는 프랑스 및 다른 서구 열강과 투쟁하고 국내적으로 백인에 대한 유희적 태도와 플랜테이션 대농장 유지 정책으로 그가 아이티 국민과 갈등하는 내용을 중심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연극의 마지막은 데살린의 황제 즉위와 함께 전해진 루베르튀르의 옥사((獄死)) 소식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연극의 재구성은 아이티 혁명이 더 이상 혁명의 로망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의 시작인 프롤로그는 대서양 노예제가 단순히 억압적·부정적 권력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생도밍그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식민지 사회가 흑인 노예의 고통스런 노동으로 지탱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이 받은 비인간적 모멸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역과 모멸 속에서 무대 뒤 실루엣의 이미지로 처리된 흑인 노예들은 노예제의 파괴와 백인에 대한 복수를 노래한다. 그리고 블랙 스파타쿠스(black Spartacus)의 등장을 요청하는 계몽사상가 레날(Abbé Raynal)의 저작을 루베르튀르가 읽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한다. “아베는 말하는군. ‘이제 필요한 것은 용감한 지도자뿐이다.’<sup>66)</sup> 이전에 수천 번도 더 읽었는데, 마치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이야...이제 필요한 것은 용감한 지도자뿐이다.” 희곡은 흑인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권력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흑인 노예의 정신을 억압하고 그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억압적·부정적 효과를 가진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 주체에 대한 생산적·긍정적 권력 효과를 가진다. 새로운 욕망이 주입되고 새로운 성향이 주조되며 새로운 위치가 획득된다. 다른 말로 문명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루베르튀르는 레날의 저작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큰일을 할 운명(destiny for great thing)”을 받아들이고 노예 해방과 자유 획득을 이룰 수 있는 흑인 노예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꾼다. 근대 정치적 욕망과 계몽된 감수성을 갖게 된 것이다.

세제르에게 크리스토프 왕은 네그리튀드의 선구자였다면, 제임스에게 루베르튀르는 카리브 국민 정체성의 선구자였다. 아이티 혁명은 최초로

---

66)James, “The Black Jacobins”, p. 71

카리브인이 하나의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 혁명이었다.<sup>67)</sup> 카리브 국민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유와 근대적 삶을 향한 열정이다. 희곡은 루베르튀르의 말을 통해서 카리브 국민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당신은 아프리카인이 나머지 인간 종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종류의 동물이라는 망상에 시달렸지. 그러나 아프리카인이 그렇게 구분된 것은 대서양을 건너와 앤틸리스 제도에 버려졌을 때였어... 나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추장이었다. 납치되어 여기로 오기 전에 노예를 소유했었다고. 그는 말했었지. 몇몇 아프리카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백 년 동안 노예제를 알고 받아들였다고.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오자마자 보게 되었다고. 오직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만이 노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검기 때문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자유(freedom)! 당신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러지 못한다면, 이 섬은 유혈과 무덤의 섬이 될 것이야. 장군, 이들을 봐. 그들 몇몇은 오직 프랑스로로 한 단어만 알아들어. 자유(Liberté)...그들은 자유(Liberté)를 위해서 무엇이든 함께 할 거고 자유를 위해서 무엇이든 떠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날, 내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느끼는 날이 오면, 나는 끝나는 거지.”<sup>68)</sup> 이렇게 자유라는 근대 정치적 열망을 가진 카리브 국민을 창출한 것은 식민지 근대성, 즉 카리브의 플랜테이션 노예제였다.

제임스에게 카리브는 이중적 의미에서 처음부터 근대적이었다. 카리브는 근대성이 경합해야 할 전근대적 또는 비근대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 선주민 인디언들이 인구학적으로 거의 전멸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과 달리 토착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흑인 노예들은 강제적 이주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이들은 이주한 첫날부터 서구식 생활을 훈련받았다. 또한 제임스에게 카리브는 식민주의적 조우를 통해서 근대성이 처음 등장한 곳이었다. 카리브에 고유한 제도로서 플랜테이션 노예제는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 플랜테이션 대농장은 동시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67)James, *The Black Jacobins*, p. 391.

68)James, “The Black Jacobins”, p. 77.

앞선 자본주의 생산에 기초한 농업과 공업의 복합체였다. 산업시대의 계약노동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세계 시장을 위한 기계화된 설당 생산 과정에서 노예노동은 체계적이고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sup>69)</sup> 따라서 흑인 노예는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근대적 노동환경에 적절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켜야만 하였다. 이들은 재빨리 서구 문화를 습득하고 변형시켜 자기 문화를 창출하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제임스에 따르면 이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인 아니었다.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 지역에 살게 된 아프리카인은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적·사회적 범주가 되었다.<sup>70)</sup> 그러나 이렇게 고유한 기원과 역사를 통해서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자기 규율과 집단 동원 능력을 가진 근대적 주체와 국민이 되었지만 근대적 자유와 풍요가 백인과 달리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의 모순이 카리브인을 자유를 열망하는 가장 반역적인 국민으로 만들었다.

세제르가 카리브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임스는 근본적으로 서구 문명에 속한다고 인식하였다. 카리브에 대한 아프리카의 문화적·언어적 기여에 관해서 질문 받았을 때,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는 서인도(카리브) 지식인들의 언어와 문화의 아프리카적 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언어와 문화에 관해서 나는 아프리카적인 뿌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신의 검은 피부에도 불구하고, 서인도 국민은 아프리카와 관련된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 카리브 문명의 뿌리는 서구 문명의 변형(adaptation)입니다.”<sup>71)</sup> 청년 제임스의 경우, 아프리카를 야만이라고 생각하고 서구화된 카리브는 이와는 다르다는 시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은 분명 제임스의 이러한 서구 중심적 사고를 교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아프리카 문명의

69) C. L. R. James, “On The Negro in the Caribbean by Eric Williams(1943)”, C. L. R. James, *C. L. R. James on the 'Negro Question*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6), pp. 118-119.  
 70) C. L. R. James, “Presence of Blacks in the Caribbean and its Impact on Culture(1975)”, C. L. R. James, *At the Rendezvous of Victory: Selected Writing*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80), p. 218.  
 71) Angus Calder, “An Audience with C. L. R. James”, *Third World Book Review* 1(1984), p. 21.

가치를 재인식하게 한 자신의 네그리튀드 개념이 세제르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72)</sup> 그는 흑인 노예들이 노예제의 잔혹함 속에서도 서구 문화를 재빨리 전유할 수 있었던 것은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문명 생활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제 이주로 자신의 문화를 상실했지만 서구 문화를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73)</sup> 제임스는 서구 문명에 못지않게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발전된 문명을 가졌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세제르의 생각처럼 이들 지역은 자신의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서구적 근대성과는 구별되는 대안적 근대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제임스는 카리브는 이들 식민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카리브의 탈식민화는 오직 (서구적) 근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스럽고 힘든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임스의 희곡에서 세제르가 보여주는 아프리카를 통한 카리브의 구원이라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베르튀르에게 아프리카는 해방시킬 대상이 되었다. “생도밍에서 우리는 해방된 노예들의 전초기지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카리브 흑인들은 모두 노예들이네... 이제 나는 군인 천명을 아프리카로 데려가서 흑인 노예무역에서 수십만 명의 흑인을 자유로이 풀어주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자유로운 프랑스인으로 만들 작정이야.”<sup>74)</sup> 제임스에 따르면 루베르튀르는 반인종주의와 반식민주의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했던 범아프리카주의의 선구자였다. 이러한 국제주의적 운동에 대한 관심은 신세계 흑인 노예, 즉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제임스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조차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면 아프리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카리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 식민지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sup>75)</sup>

72)C. L. R. James,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1968)”, James,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 p. 231.

73)C. L. R. James, “The Making of the Caribbean People(1966)”, James,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 p. 33.

74)James, “The Black Jacobins”, p. 90.

75)C. L. R. James, “The Mighty Sparrow, Note of 1962”, *C. L. R. James, The Future in the Present: Selected Writings* (Westport, Connecticut: Lawrence Hill & co., 1977), pp. 197-198.

제임스는 1968년 쿠바에서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세제르가 프랑스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erieure)와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라틴어·그리스어, 즉 서구문명의 정수를 전공한 엘리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76)</sup> 서구문명에 대한 20세기의 가장 파괴적인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내를 살살이 그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제임스에 따르면 이것은 모든 카리브인의 특징이었다. 세제르가 수행했던 서구문명의 비판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은 흑인의 열등함이라는 식민주의 담론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간됨을 긍정하는 것을 통해서 카리브인이 자신의 국민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하나의 단계였다. 그러나 세제르에게 “마르티니크는 사랑하지만 소외된 땅이었고” “아이티는 영웅적 엔틸리, 아프리카적 엔틸레스를 표상” 했기 때문에 그는 아프리카와 구분되는 카리브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제임스는 카리브의 식민지 근대성은 카리브 국민에게 자기 부정과 소외가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를 제공해왔다고 생각하였다. 아이티의 루베르튀르, 자메이카의 가비(Marcus garvey), 마르티니크의 세제르와 파농,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카마이이클(Stokely Carmichael) 등은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sup>77)</sup> 이들은 카리브 식민지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성 자체의 변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아프리카와 구분되는 카리브 국민성에 대한 제임스의 인식은 1950년대 말부터 카리브의 탈식민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그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1967년 회곡에서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내의 계급적·젠더적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확대된다. 제임스는 허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서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평범한 흑인 노예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sup>78)</sup> 1936년 회곡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흑인 병사와 여성이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인물로

---

76)James, “The Class Basis of the Race Question(1971)”, p. 55.

77)James, “Presence of Blacks(1975)”, pp. 225-235.

78)C. L. R. James, “How I Would Rewrite the Black Jacobins(1971)”, *Small Axe*, 8(2000), p. 100.

등장한다. 프랑스식 귀족 호칭을 가졌던 크리스토프 왕의 신하들처럼 이들은 오를레앙(Orleans), 맥스(Max), 마라(Marat) 등 스스로가 만든 프랑스 혁명가와 관련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 장면이 시작할 때 등장하여 중요한 의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지배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애란 도대체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반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프랑스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루베르튀르의 어려움을 암시한다.<sup>79)</sup> 또 아이티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과생물이라는 사고방식을 뒤집는 생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백인 노예들은 생도밍그의 흑인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들었어. 우리가 그랬다고 듣고 우릴 따른 거지. 프랑스에서 백인 노예는 더 이상 피아노를 읊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 늙은 백작과 공작에게 읊기게 하겠지.”<sup>80)</sup> 이러한 언급은 노예제와 식민주의가 철폐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생도밍그의 계급 관계를 또한 암시하는 것이다. 마리 잔느(Marie-Jeanne)는 연극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몰라토 여성으로 부유한 농장주의 첩이었지만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혁명가로 변모하는 실제 역사에는 없는 인물이다. 자신에게 구애하는 데살린에게 적에게 빼낸 기밀을 루베르튀르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은 날 소유할 수 없었어, 데살린 장군. 아무도 날 소유하지 못해요. 노예제도는 끝났어요.”<sup>81)</sup> 이러한 연극의 장면들은 대중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데살린이나 루베르튀르 같은 혁명 지도자, 즉 남성 영웅이 가졌던 국민적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와 대중의 긴장은 《블랙 자코뱅》의 비극적 서사 구조에서 중요하다. 루베르튀르와 데살린 같은 혁명 지도자는 선과 악의 구도에서 악(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대항한 선(보편적 자유와 해방)을 구현하는 남성 영웅이 더 이상 아니다. 그들은 루베르튀르처럼 유럽 제국과 정치적·군사적으로 투쟁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다른

79) James, “The Black Jacobins”, p. 75.

80) *Ibid.*, p. 74.

81) *Ibid.*, p. 87.

한편 대중과 관련해서는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모습을 또한 보인다. 그들은 혁명의 지도자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동요한다. 그리고 《투쟁 루베르튀르(1936)》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플랜테이션 대농장의 해체를 호소하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루베르튀르에게 처형을 당한 모이즈(Moïse L'Ouverture)가 그이다. 모이즈는 제임스가 “블랙자코뱅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라는 한 강연에서 언급했던, 아래로부터 선출되어 사실상 혁명을 이끌었던 이름 모를 수백 수천의 작은 지도자들을 상징한다.<sup>82)</sup> 희곡에서 모이즈의 처형은 프랑스 문명과 자유(독립) 사이의 선택에서 루베르튀르의 정치적 동요를 잘 보여주며 아이티 민중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83)</sup> 루베르튀르의 정치적 동요와 실책은 그가 바로 스스로가 타도하고자 했던 식민지 체제(계몽)의 산물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크리스토프 왕처럼 루베르튀르도 식민지 근대 세계가 만든 범주와 제도 안에서 국가 건설을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근대성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전망과 수단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제임스의 표현을 빌자면 “루베르튀르의 실패는 무지의 실패가 아니라 계몽의 실패였다.”<sup>84)</sup> 희곡은 반식민주의 투쟁에서 남성 흑인 지도자의 저항적 주체성과 혁명의 승리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전제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구조의 힘과 역사의 우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블랙 자코뱅》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지막 장면은 루베르튀르의 옥사를 알리는 소식과 함께, 데살린의 황제 즉위를 축하하는 미뉴에트의 연주 속에서 끝이 난다.<sup>85)</sup> 식민지 독립이 자유의 최종적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의 시작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스콧의 주장처럼 총체적 혁명의 전망을 상실한 탈식민주의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연극 대본의 ‘에필로그’

82) C. L. R. James, “How I Would Rewrite the Black Jacobins”, pp. 103–105.

83) James, “The Black Jacobins”, pp. 95–99.

84) James, *The Black Jacobins*, p. 288.

85) *Ibid.*, p. 111.



를 포함시키면 그 전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sup>86)</sup> 아직까지 출판된 적이 없는 에필로그는 18세기 아이티 혁명의 이야기로부터 관객을 1960년 동시대의 현실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탈식민화에 대해서 나누는 가상의 정치 대화를 들려준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들 즉, 루베르튀르, 크리스토프, 데살린 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그 역할을 연기한다. 처형당한 모이즈 또한 현대의 정치인으로 재등장하여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게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 그리고 이를 위한 연대를 호소하는 장면으로 에필로그는 끝이 난다. 혁명적 전망의 소진과 비관적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자율성에 기초한 좀 더 민주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티 혁명 연극을 통해서 드러나는 카리브 사회와 탈식민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세제르와 제임스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한 침묵을 설명한다. 세제르에게 플랜테이션 노예제로 상징되는 서구적 근대성은 카리브 지역과 흑인 정체성의 자기 소외와 자기부정을 불러온 억압적·부정적 권력이었다. 그는 서구적 근대성의 비판과 아프리카의 문화를 통해서 흑인 정체성의 복원과 카리브 사회의 구원을 추구하였다. 아프리카와 카리브의 식민지 독립 이후의 비극적 상황을 반영하는 아이티 혁명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크리스토프 왕과 같은 식민지 저항 주체의 형성에도 미치는 식민주의의 생산적·구성적 힘(권력)을 인식하고 네그리튀드를 비본질주의적인 방식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안은 아프리카의 문화에 있었다. 이러한 세제르의 시각에서 제임스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고 계급 중심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제임스에게 카리브 사회의 기원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서구 문명에 있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자신의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서구적

---

86) C. L. R. James, Typed manuscripts (7 copies) of the play Black Jacobins dated 1967.

근대성과 구별되는 대안적 근대성을 창출할 수 있지만 카리브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카리브는 전근대적·비근대적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서구적 근대성을 경험하였다. 카리브 국민성의 등장은 서구적 근대성 안에서 이루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가능했고 진정한 탈식민화의 성취 또한 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제임스의 시각에서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개념은 카리브 국민성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한 단계일 뿐이었다. 즉,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도 구별되는 카리브 사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한 변증법적 과정이었던 것이다. 헤겔주의적인 용어에서 카리브 국민 정체성에 대한 최종적 자기 인식은 제임스의 저작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세제르는 서구적 근대성이라는 ‘단 하나의 문명’이 아니라 대안적 근대성이 ‘여러 개의 문명, 복수의 문명’으로 공존하는 다중적 근대성에 대해서 생각한다. 즉 서구 문명을 보편으로 주장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또 하나의 특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특수들의 공존을 통한 보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르의 시각은 서구 문명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에서 유럽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문명이 출현했다고 가정되는 ‘유럽’이라는 지리적·문화적 경계 자체를 문제 삼고 의문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윤리적 타당성과 보편성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임스의 접근은 식민주의적 조우를 통해서 유럽 문명이라는 지리적·문화적 경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제임스에게 카리브 사회는 식민주의적 조우를 통해서 근대성이 개시된 곳이다. 따라서 근대성은 처음부터 이질적이며 내적으로 다양하고 심지어 모순적인 현상으로 출현하였다. 생도밍그의 정체성이 프랑스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것만큼이나 프랑스의 정체성을 형성시켰던 것은 생도밍그였다. 따라서 제임스는 특수들의 공존을 통한 보편의 지향이 아니라 보편 그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의 근대성과 탈식민화에 대한 입장은 세제르의 것과 분명한 달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제르와 제임스의 아이티 혁명 희곡은 공통적으로 반식민주의에서 탈식민주의 문제공간으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서사방식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반식민주의 해방서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비극적 아이러니는 총체적 변혁을 지향하는 반식민주의 열망이 전제 정치를 낳게 되는, 네그리튀드가 그 개념에 가장 반하는 수단을 통해서 추구되게 되는, 자유를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자유를 잃게 만들게 되는,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하는 사회구조의 힘과 역사의 우연에 더 주목하게 하였다. 그리고 흑인 노예의 성향을 억압하고 부정적 권력이면서 동시에 이들을 근대적 주체로 만드는 생산적 권력으로서 노예제와 식민주의를 인식하게 하였다. 루베르튀르와 크리스토프 왕이 저항적 주체로서 특정한 전망과 성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했던, 다르게 말해서 이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규정했던 식민지 근대의 범주와 제도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의 탐색이 스콧이 말하는 것처럼 총체적 변혁의 가능성과 유효성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저항의 추구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고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인류애의 실현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한 탈식민주의적 주체 형성의 노력에서 이렇게 세제르와 제임스는 공통된 모습을 지녔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hayoungj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C. L. R. 제임스(C. L. R. James), 아이티 혁명(Haitian Revolution), 크리스토프왕의 비극(*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블랙자코뱅(*The Black Jacobins*), 블랙인터내셔널리즘(Black Internationalism), 흑인급진주의(Black Radicalism)

(투고일: 2019. 04. 14, 심사일: 2019. 05. 07, 게재확정일: 2019. 05. 07)

<국문초록>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하영준

이 연구는 프랑스령 카리브 식민지 마르티니크 출신의 세제르(Aimé Césaire)가 쓴 희곡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1963)》과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 트리니다드 출신의 제임스(C. L. R. James)가 쓴 희곡 《블랙 자코뱅(1967)》을 비교 연구한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평면적 비교에 그치지보다는 상호 관계-차이와 긴장-에 관심을 둔다. 기존의 지배적 가정, 즉 제임스가 1938년에 쓴 역사서 『블랙 자코뱅』이 아이티 혁명과 관련된 세제르의 저작들 영향을 미쳐다는 가정과는 달리, 세제르가 1967년의 제임스의 《블랙 자코뱅》의 수정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가정에서 두 작품 사이에 관계를 분석한다. 이들 작품은 스코트의 문제 공간 개념을 활용하자면 아이티 혁명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에서 반식민주의적인 서사에서 탈식민주의적인 서사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근대성과 탈식민화에 대한 흑인 급진주의 사상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내에 존재하는 이론적·정치적 긴장과 차이를 드러낸다.

<Abstract>

Black Internationalism and Memor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1960s  
- Comparative Analysis of Aimé Césaire's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and C. L. R. James's *The black Jacobins* -

Ha, Youngjun

This study compares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A Play* written in 1963 by Aimé Césaire from the French colony, Martinique, with the play, *the Black Jacobins* written in 1967 by C. L. R James from the British colony, Trinidad.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differences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work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not the simple comparison. Until now, researchers have assumed that Césaire's works on the Haitian Revolution were influenced by James' famous historical book, *The Black Jacobin*, written in 1938. Bu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ks, assuming that Césaire exerted some influence on James' play, *The Black Jacobins*(1967). To use David Scott's 'problem-space' concept, The two works are associated with a shift from anti-colonial narrative to post-colonial narrative in reconstructing memor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y also reveal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differences and tensions in Black internationalism and Black radicalism on the conception of (Western) modernity and post-colonialism.

참 고 문 헌

1. 사료

James, C. L. R. (1936), *Toussaint Louverture: The Story of the Only Successful Slave Revolt in History, A Chronicle Play in 3 Acts*, [manuscript], No 275, Box 12,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_\_\_\_\_, Typed manuscripts (7 copies) of the play *Black Jacobins* dated 1967, no. 228, box 9,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2. 단행본

Bailey, Marianne Wichmann, *The Ritual Theater of Aimé Césaire: Mythic Structures of the Dramatic Imagination* (Tubingen: Narr, 1992).

Césaire Aimé (1939), *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3).

\_\_\_\_\_(1955), Joan Pinkham trans., *Discourse on Coloni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_\_\_\_\_(1962),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_\_\_\_\_(1963),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_\_\_\_\_(1967), *Une saison au Congo* (Paris: Seuil, 1973).

\_\_\_\_\_(1969), *Une tempête* (Paris: Seuil, 1969).

Hutton, Clinton, *The Logic &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Cosmological Roots of Haitian Freedom* (Kingston, Jamaica: Arawak, 2005).

James, C. L. R. (1963),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Vintage Edition, Random House, 1989).

- \_\_\_\_\_ (1967a),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 Kaisary, Philip,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 Rabaka, Reiland, *Africana Critical Theory: Reconstructing the Black Radical Tradition: From W. E. B. Du Bois And C. L. R. James to Frantz Fanon and Amilcar Cabral* (Lexington Books, 2009).
- Scott, David,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4).
- Wichmann-Bailey, Marianne, *The Ritual Theater of Aimé Césaire: Mythic Structures of the Dramatic Imagination* (Tubingen: G. Narr, 1992).
- Winkiel, Laura, *Modernism, Race and Manifesto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2. 논문

- 진중화, 「에메 세제르의 크리스토프왕의 비극과 아이티의 역사」, 『프랑스문화연구』, 38집(2011).
- \_\_\_\_\_, 「‘크리스토프왕의 비극’에 나타나는 탈식민화」, 『한국프랑스학논집』, 80집(2012).
-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 C. L. R. 제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양사론』, 124호(2015).
- Charles Forsdick, “Haiti and Departmentalisation: The Spectral Presence of Toussaint Louver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Francophone Studies*, 11- 3(2008).
- Conteh-Morgan, John, “A Note of the Image of the Builder in Aimé Césaire’s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The French Review*, 57-2(1983).
- Curtis Small, Jr., “‘Cet homme est une nation’: the Leader and the

- Collectivity i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Hugo, Lamartine, Glissant, Césaire)”,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French, New York University, 2001).
- Dunn, David, and Aimé Césaire, “Interview with Aimé Césaire on a New Approach to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and *Une saison au Congo*”, *Cahiers Césairiens*, 4(1980).
- Edwards, Brent Hayes, “Césaire Aimé and the Syntax of Influenc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 36–2(Summer, 2005).
- Fick, Emmanuelle E., “The Body, the Stage, and the Theory: Unpacking the Body in Aime Cesaire’s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Baptista Prizewinning Essay*(February, 2010).
- Figueroa, Víctor, “Between Louverture and Christophe: Aimé Césaire on the Haitian Revolution”, *French Review*, vol. 82–5(2009).
- Gant-Britton, Lisbeth, “The Question of Power in *Monsieur Toussaint* and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aroles gelées: UCLA French Studies*, 14– 1(1996).
- Gary Wilder, “Untimely Vision: Aimé Césaire, Decolonization, Utopia”, *Public Culture* vol. 21, no. 1(2009).
- James, C. L. R. (1967b), “The Black Jacobins”, Anna Grimshaw ed., *The C. L. R. James Reader* (Oxford: Blackwell, 1992).
- \_\_\_\_\_ (1967c),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David Austin ed., *You Don’t Play with Revolution: The Montreal Lectures of C. L. R. James* (Edinburgh, Oakland, and Baltimore: AK press, 2009).
- \_\_\_\_\_ (1971), “How I Would Rewrite the Black Jacobins”, *Small Axe*, No. 8(September, 2000).
- Jones, Bridget, “‘We Were Going to Found a Nation...’: Dramatic Representations of Haitian History by Three Martinican Writers”, Bridget Brereton ed., *The Colonial Caribbean in Translation: Essays on Postemacipation*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9).
- King, Nicole, “C. L. R. James, Genre and Cultural Politics”, Christopher Gair ed., *Beyond Boundaries: C. L. R. James and Postnational Studies* (London, Ann Arbor: Pluto, 2006).



- La Gerre, John,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Aimé Césaire and C. L. R. James : Some Comparisons", Paul Sutton ed., *Dual Legacies in the Contemporary Caribbean: Continuing Aspects of British and French Dominion* (London and Totowa, New Jersey: Frank Cass, 1986).
- Livingston, Robert Eric, "Decolonizing the Theatre: Césaire, Serreau and the Drama of Negritude", J. Ellen Gainor ed., *Imperialism and Theatre: Essays on World Theatre, Drama and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1995).
- Nesbitt, Nick, "Departmentalization and the Logic of Decolonization", *L'Esprit Créateur*, 47-1(2007).
- Sweeney, Fionnghuala, "The Haitian play: C. L. R. James' *Toussaint Louverture(1936)*", *International Journal of Francophone Studies*, 14-1&2(2011).
- Walsh, John Patrick, "Césaire Reads Toussaint Louverture: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Problem of Departmentalization", *Small Axe*, vol. 15-1(March, 2011).
- Wolitz, Seth, "The Hero of Negritude in the Theater of Aimé Césaire", *Kentucky Romance Quarterly*, 17-3(1969).